

# 조선후기 근기남인의 독서노트 \*

- 순암 안정복의 초서록 -

합영대 \*\*

- 1. 문제제기
- 2. 순암의 저작과정과 초서록계 저술
- 3. 초서록계 저작의 양상
  - 1) 『안정복일기』 속의 초서록계 저작
  - 2) 국립중앙도서관 소장 초서록계 저작
- 4. 남는 문제

## 1. 문제제기

이 논문은 순암 안정복의 저술노트를 그가 구축한 문헌을 중심으로 검토한 것이다. 순암 안정복은 「題抄書籠」과 「題著書籠」 시를 통해 자신의 장서는 직접 구해본 서적을 초록함으로써 구축되었으며, 그렇게 초록한 서적을 독서함으로써 자신의 저작이 탄생했다고 고백한 바 있다.<sup>1)</sup> 抄書를 통한 저작의 과정은 전통시

\* 이 논문은 2016년 1월 6일 서울대학교 규장각한국학연구원에서 열린 인문한국사업단 제27회 HK워크숍 “동아시아 문헌학과 문헌학자”의 발표문을 수정·보완한 것임.

\*\* 성균관대학교 대동문화연구원 책임연구원.

1) 순암 안정복은 「題抄書籠」에서 이렇게 자신의 초서의 과정을 읊었다. “(전략) 언제나 귀한 책 있단 말만 들으면 무슨 수를 써서든 반드시 구하지 이미 책을 살 돈이 없기에 책을 베낄 생각을 가질 수밖에 온종일 쭈그리고 앉아 베끼고 날 저물면 등잔 아래에 베껴 쓰지 잔글씨로 지렁이 기어가듯 쓰지만 결코 부끄럽게 여긴 적은 없어라 힘이 지치면 남의 손 빌려서라도 그 책을 다 베껴 쓰고야 말지 한 책 베끼는 게 몸시 어려우니 어루만지며 진귀한 보물로 여긴다 (후략)” 『順菴集』 卷1, 「題抄書籠」 “(전략) 每聞有奇籍, 多方必図致,

대 초록을 통한 지식형성이라는 관점에서 보았을 때<sup>2)</sup> 어느 정도는 일반적인 현상으로 파악할 수 있다. 그러나 안정복의 경우, 그 자신의 초록서들이 방대하게 남아 있을 뿐만 아니라 저서와도 밀접한 관계를 가지고 있다는 점에서 주목할 만하다. 한 지식인이 손수 필사하여 장서를 구축하여 지식정보를 축적하고, 그것을 활용하여 저작에 이르는 과정을 온전하게 복원할 수 있다는 점에서, 조선 후기 근기남인의 지식형성과 저술이라는 조선후기 학술사의 한 단면을 규명하는데에도 적지 않은 의미가 있을 것으로 생각된다.

그러나 그의 방대한 초서통계 저작에 대한 검토가 아직 충분하지 못하고, 그가 직접 작성한 저작목록들이 모두 상세하게 규명되지 않았으며, 그의 방대한 저작 역시 아직 충분하게 연구되지 않았다는 점에서 이 분야의 연구는 아직 초기 단계라고 할 수 있다.<sup>3)</sup>

既無買書錢, 乃有鈔書意, 垂首坐終日, 復以灯火繼, 蟬頭畫蚯蚓, 曾不爲愧耻, 力疲倩人手, 卷終斯置已, 成編亦艱難, 把玩自珍貴 (후략)"(번역은 이상하, 2016 『교감역주 순암집』, 성균관대출판부, 87면 참조. 이하 순암의 시 번역은 이 책을 참고한다). 한편 「題著書籠」에서는 초서의 지난한 과정을 통해 자신의 저서가 이루어졌음을 고백했다. "우리 한산의 가업은 팔백 년을 이어왔는데 집안이 원래 가난한 탓에 책을 제대로 쌓아두지 못했는데 수십 년 동안 갖은 고생 겪으며 전심전력하여 책을 구입해서 經史子集의 갖가지 서책들을 그럭 저력 모아서 구비하였네. 책마다 표지를 새로 입히고 고생스레 손수 다 꿰매었지 (중략) 책을 본 지 세월이 쌓여가서 읽은 책이 백 권 천 권도 넘으니 가슴 속엔 마치 무언가 있어서 밖으로 마구 뛰쳐나오려는 듯 그래서 저술하려는 뜻을 일으켜 글을 짓느라 밤잠도 잊었더라 (후략)" 『順菴集』 卷1, 「題著書籠」 "惟我漢山業, 相承八百年, 家世本清貧, 曾不有簡編 辛勤數十載 求之心頗專 經史與子集 貞粹亦畧全 一一堅紙裝 辛苦手自穿 (중략) 讀之積年歲 卷帙踰百千 胸中如有物 輸困欲自宣 遂起著書意 編輯夜忘眠 (후략)" 이 초서통과 저서통의 과정을 엎고 있는 순암의 학인으로서의 여정은 진정 박실하고 진중한 것이다. 가난을 딛고 학문에 정진하고자 하는 지향 역시 과소평가할 수 없다. 특히 「제초서통」에서 자신의 힘이 지치면 남의 손을 빌려 베끼기를 완성했다는 고백은 그의 친필 필사본에 간혹 나타나는 다른 필체의 이유를 설명해 준다.

2) 초록을 통한 지식정보의 형성과 관련해서는 진재교, 2007 「이조 후기 简記体 필기 연구: 지식의 생성과 유통의 관점에서」 『한국한문학연구』 39 참조.

3) 안정복의 저작과 관련하여 순암 안정복선생 기념사업회에서 전시와 함께 연구과제로 제출하여 『순암 안정복의 일상과 이택재 장서』(2013 성균관대출판부)에 수록된 다음 세 편의 논문이 참고가 된다. 김현영, 「순암 이택재 장서의 형성과 산일」은 순암가의 서재인 이택재 장서의 형성과 산일을 꼼꼼하게 검토한 것으로 특히 순암이 저작을 완성해 나가는 과정을 순암 自篇의 장서목록을 발굴하여 추적함으로써 순암의 저술 과정을 새롭게 밝혀냈다는 점에서 큰 의미가 있다. 이해은 · 김효경, 「순암 안정복 장서의 수집과 그 특징: 국립

이 글은 이러한 문제의식을 연작 논문을 통해 규명하기로 하고, 그 첫 단계로 순암의 장서구축과정과 밀접하게 닿아있는 저작목록을 조사하되 가급적 초서롭게 저작과의 연관성을 염두에 두고 전면적으로 자료를 검토하여, 그 저작의 범위와 지식형성의 지형도를 고찰하는 교두보로 삼고자 한다. 곧 조선 후기 근기남인의 서재와 그 지식정보는 과연 어떠한 규모와 양상으로 구축되는가를 살펴보려는 것이다. 이 과정은 한편으로는 정조와 밀접한 관련을 가지며 규장각의 국가급 장서를 열람했다는 점에서,<sup>4)</sup> 다른 한편으로 성호학파의 중요한 일원으로서 성호학파의 학맥을 근현대까지 이어준 순암 안정복이 그 자료구축의 장본인이라는 점에서 모두 적지 않은 의미가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 2. 순암의 저작과정과 초서롭계 저술

순암은 평생을 통해 쉬지 않고, 문헌을 정리하고 저작활동을 했다. 『순암집』에 부록된 「순암선생연보」는 황덕길이라는 직전제자와 직계 후손가에 의해 정리되어 상당히 완정한 것으로 평가받고 있다. 그의 연보에는 특히 그의 저작에 대해 자세하게 소개하면서 저작의 시기와 의미에 대해 짚어놓았는데 저작을 초점에 놓고 연보를 정리한다면 다음과 같다.<sup>5)</sup>

---

중앙도서관 소장본을 중심으로는 국립중앙도서관에 소장된 안정복 장서를 검토했는데 특히 많은 분량을 차지하는 초서롭계 저서의 의미와 그 검토방향을 짚어주었다는 점에서 적지 않은 의미가 있다. 한편 안병걸, 「안정복의 생애와 저술」은 연보의 기록을 중심으로 안정복의 생애에 따른 저술을 정리했는데 그 삶의 행간에서 저술의 의미를 적실하게 지적하여 참고할 내용이 적지 않다.

- 4) 「순암연보」와 「계방일기」에 의하면, 그가 익위사 익찬으로 있던 영조 48년(1772) 6월 을 축일, 서연을 마친 뒤에 동궁(뒷날의 정조)이 “옥당과 강원의 서적을 가져다 보아도 좋다”고 한 기록이 보인다. 이 기록은 분명히 순암이 궁중의 서적을 열람할 수 있었다는 것을 방증하는 것으로 이에 대한 구체적인 내용은 현재 진행되고 있는 『잡동산이』에 대한 연구 이후에 보고하기로 한다.
- 5) 순암의 연보를 중심으로 순암의 저작을 정리한 연구로 가장 자세한 것은 안병걸, 앞의 논문이 있다. 이 표는 안병걸, 앞의 논문을 참조하여 좀 더 간결하게 정리하고 약간의 내용을 덧붙인 것이다.

〈표 1〉 연보에 기록된 순암의 저작목록

연도 (나이)	주요 저작명	내용	비고
1740년 (29세)	下學指南	爲學次第	下學觀
	井田說	經濟	東史問答 참조
1741년 (30세)	內範	女性教育	逸失(雜同散異內 落帙 草稿)
1748년 (37세)	洪範衍義(抄)	經學, 經世學	
1750년 (39세)	雜掛說, 雜掛後說	經學	문집 수록
1752년 (41세)	李醇叟遺事	文學	성호 아들 李孟休
1753년 (43세)	廣州志	地方志	地方誌
	李子粹語	退溪語類	성호편찬 道東錄 개편
1756년 (46세)	廣州府廣安面二里洞約	鄉村自治	木州政事에 活用
1757년 (47세)	希賢錄	修身書	
	臨官政要	牧民行政	牧民心書 先聲
1759년 (49세)	東史綱目	東國歷史書	
1762년 (51세)	星湖僕說類選	類纂書	星湖僕說 分類
1763년 (52세)	百選詩	詩選集	
	史鑑	中國史 編纂	
	函丈錄	星湖 從遊錄	문집 수록
1765년 (54세)	無名五賢贊	修身書	
1766년 (55세)	陶靖節贊	修身書	
	六箴	修身書	
1767년 (56세)	列朝通記 편찬시작	東國歷史書	
1769년 (58세)	星湖禮式序	禮學	星湖禮式 序文
1775년 (64세)	語類節要	朱子學編纂	朱子 文獻整理
	磻溪柳先生年譜	磻溪史學 繼承	磻溪 繼承
1778년 (67세)	大麓志	木川縣誌	地方邑誌
1780년 (69세)	鄉射笏記	鄉射禮 實踐	문집 수록
1781년 (70세)	家禮集解	禮學	逸失
1785년 (74세)	天學考, 天學問答	西學書	西學排斥
	詩經物名攷	詩經小學書	逸失
1786년 (75세)	德社學約	鄉村教化	문집 수록
	東銘圖	張載 東銘圖說	宋學

한편, 안정복은 48세(1759) 때에 병마로 인해 심혈을 기울여 편찬하던 『동사 강목』을 중도 포기해야만 하는 상태에 이르렀다. 그는 유언의 형식으로 아우 鼎祿과 아들 景曾을 불러놓고 편찬되지 못한 『동사강목』은 물론 기준에 자신이 저술 작업을 진행하고 있던 저작과 그 상황을 설명하며 그 마무리를 부탁했다.

나는 집이 가난하여 쌓아둔 책이 없기 때문에 짚을 때부터 즐겨 책을 鈔錄하여 잊어버리는 것에 대비하였다. 그러나 상자에 가득한 亂帙 중에는 전혀 긴요한 것이 없다. 저서로는 『下學指南』이 참으로 볼 만한 것이 있으나 번거롭고 쓸데없는 부분을 아직 정리하지 못하였다. 『讀史詳節』 또한 그 상세한 서술과 간략한 서술이 적절 하지만 兩漢 부분이 없어졌고 宋明의 것은 편찬하지 못했으며, 중간에도 빼고 다듬지 못한 곳이 많으니, 이것은 아직 완성하지 못한 책이다.

갑술년(1754, 영조 30)에 居喪한 후에 『家禮註解』를 편찬하느라고 꽤나 심력을 기울였으나, 글이 낌이 알아보기 힘든 亂草라서 내가 직접 校檢하지 않는다면 남들은 이를 판독할 수 없으니, 역시 미완성의 책이나 마찬가지이므로 이 점이 한스럽다.

또 일찍이 『가례』의 목록에 의거하여, 위로 三禮에서부터 『通典』과 濟洛諸賢 및 우리나라 선유의 설에 이르기까지를 엮어서 『家禮翼』이라고 이름 하였으니, 이 또한 하나의 거대한 저술이다. 그러나 아직 완성하지 못하였으니, 뒤에 어떤 사람이 이것을 완성할 수 있을지 모르겠다. 『帝王聖賢二統』은 비록 짚을 때에 편찬한 것이나, 그림으로 만들어서 벽 위에 걸어둔다면 잡다한 그림보다는 활潑 나을 것이다.

『東史綱目』은 가장 노력을 기울인 것이지만, 겨우 고려의 仁宗 연간에 미쳤다. 그러나 「地理考」와 기타의 「辨證」이 많으니 남다른 견식을 가진 이가 있다면 더러 취할 만한 것이 있기도 할 것이다.<sup>6)</sup>

여기에서 순암이 자신의 저작으로 거론하고 있는 것은 『東史綱目』을 비롯하여 『下學指南』, 『讀史詳節』, 『家禮註解』, 『家禮翼』, 『帝王聖賢二統』 등이다. 그런데 여기에서 『家禮集解』로 개명하여 정리된 것으로 보이는 『家禮註解』나 이후 26세의 저작으로 『治統圖』와 『道統圖』로 나누어 연보에 기록되는 『帝王聖賢二統』을 제외하고 『讀史詳節』, 『家禮翼』 등의 저작은 연보에도 등장하지 않는 저작으로 그 존재가 상당히 궁금해지는 것이다.

아울러 순암의 저작 습관과 관련하여 흥미를 끄는 것은 바로 ‘전혀 긴요한 것이 없다’고 평가된 ‘상자에 가득한 亂帙’들이다. 이들은 필시 순암의 「제초서통」에서 거론된 다양한 초록서들임이 분명하다.<sup>7)</sup>

6) 安鼎福, 『順菴集』 卷14, 「示弟鼎祿, 子景曾遺書 己卯」 “余家貧無儲書, 自少好鈔錄, 以備遺忘。盈籠亂帙, 都無繫關。所著書下學指南, 儘有可觀, 而頗煩冗未刪。讀史詳節, 亦爲煩簡適中, 而兩漢見失, 宋明未編, 中間亦多有未刪潤者, 此爲未成之書。甲戌居憂後, 編家禮註解, 頗費心力, 而文在暗草, 非親自校檢, 則他人不能辨, 亦同未成之書, 是爲可恨。又嘗欲依家禮目錄, 上自三禮, 至通典濟洛諸賢我東先儒之說編之, 名曰家禮翼, 是亦一副當大篇文字而未能成, 未知後有何人能爲此否也。帝王聖賢二統, 雖少時所撰, 而囧揭壁上, 優於雜畫多矣。東史綱目, 最所用力, 而纔及於麗仁宗年間, 地理考及他辨証, 多具隻眼, 或有一得之可取。”



〈그림 1〉『순암집』 - 활자본

〈그림 2〉『순암집』 - 필사본<sup>8)</sup>

그러나 다행스럽게도 순암은 『동사강목』 저술 중단의 위기를 초래했던 병마를 극복하고 계속 저작을 이어갔으며, 자신이 소장하고 있는 서적과 현재 집필중인 저작에 대한 목록을 꾸준히 수정하면서 최신목록을 작성했다.

순암이 스스로 정리한 최초의 장서목록은 1776년 65세에 목천현감에 부임하면서 木川縣에 가지고 간 『木川縣持來冊目錄』으로 여기에는 105종 219권의 서목이 수록되어 있다. 이후 순암은 74세 때인 1785년에도 『冊曆日記』의 이면에 (1)家藏書冊舊帙 (2)自備書冊帙로 구분하여 장서목록을 정리했는데 家藏書冊舊帙은 82건은 자기 집안에 전래되어 온 것이고, 거의 그 두 배가 되는 自備書冊帙은 164건으로 총 246건이었다. 그 외에도 순암 이택재의 가장 자세한 장서목록은 순암 死後에 누군가가 정리한 것으로 파악되는 일명 이택재 장서목록이다.<sup>9)</sup> 이

7) 이 초록저작과 관련하여 순암의 방대한 유서로 널리 알려진 『雜同散異』가 주목할 만하다.

이 『잡동산이』는 이택재 장서목록에는 2~3차례 등장하지만 정작 저작목록에는 한 번도 등장하지 않는다. 그 이유는 이 책에는 순암의 저작이 거의 수록되어 있지 않고 대부분이 다양한 유서나 다른 이들의 저작을 초록해 놓은 것이기 때문이다. 그러므로 순암도 친필 초록서인 이 책을 자신의 저작으로는 생각하지 않은 것이다.

8) 본 논문에서 활용되는 사진자료는 2012년 국립중앙도서관에서 『순암 안정복 특별전: 실학자의 서재』의 자료로 촬영된 것의 일부로 대부분 당시 제작된 도록에 수록되었다.

9) '이택재 장서목록'이라는 명칭은 순암의 장서목록을 연구한 김현영, 앞의 논문에서 처음 '가칭'으로 지정되었다. 김현영 선생은 이 목록이 순암의 손자 또는 증손 대에 정리된 목록으로 짐작했다(김현영, 앞의 논문, 12면).

목록에는 총 517건 2,265책의 장서목록이 잘 정리되어 있다. 또 순암은 자신의 저술을 초서봉과 저서봉으로 구분하여 저술목록을 정리하였는데, 자신의 저술인 『하학지남』 卷尾에 자신의 저술 28건을 제시하고 있고, 짧었을 때의 일기를 후대에 정리한 『日省錄』 卷尾에도 자신의 저술을 31건으로 정리하였다.<sup>10)</sup>

이러한 많은 저술 가운데 가장 신뢰할 수 있는 저술목록은 1788년(정조12) 77세 때에 역시 『冊曆日記』에<sup>11)</sup> 직접 이미 완성된 저술과 아직 완성되지 않은 저술을 구분하여 순암 자신이 정리한 것이다. 이것을 중심으로 위에서 거론된 목록들을 정리하면 다음과 같은 종합목록을 얻을 수 있다.<sup>12)</sup>

〈표 2〉 순암 저술목록 종합

	책력일기목록 (✓는 당시 未成書)	책수	연보(나이)	일성록	하학지남	이택재(서가위치)	현준여부
1	帝王圖	1	-				
2	聖賢圖	1	-		聖賢圖		
3	日用須知✓	1	-				
4	下學指南	2	○(29)	○	○	在箱中/在黃筐中 2질	국중-전집2
5	治縣譜✓	1	-			(在案上)제4행	
6	政要	2	○(27~46)	○	○	(在案上)제4행/在黃 筐中 2질	국중- 전집3*
7	廣州志	2	○(42)		廣陵志		
8	李子粹語	2	○(42)			(在案上)제4행/在箱 中 2질	
9	潤約	1	○(45)		○	(在案上)제2행	

10) 이들 목록의 연관관계와 자세한 내용은 김현영, 앞의 논문, 30~39면에 잘 정리되어 있다.

이들 목록 중에서 초서봉에 저작은 국립중앙도서관의 『안정복일기』와 서울대학교 규장각한국학연구원에 소장된 순암 친필초본 『잡동산이』의 내용과도 함께 보아야 한다.

11) 이 책은 국립중앙도서관에 『안정복일기』라는 函으로 표기된 52번째 서적의 4장 째에 있는 것이다. 순암가의 4대에 걸친 『책력일기』는 국사편찬위원회의 김현영 편사관의 주도로 고문서학회에서 역주하여 출간을 기다리고 있다.

12) 이 표는 김현영, 앞의 논문에서 제시된 것을 정리하여 제시한 것이다. 표 안의 'O'은 소장여부이고, '국중'은 국립중앙도서관 소장본이라는 뜻이다. '전집'은 『순암전집』(1974 여강출판사), '총서'는 『순암총서』(1970 성균관대학교 대동문화연구원)에 대한 수록여부이다.

10	讀史詳節✓	17	-	○	○	在案上第1行	국중
11	史鑑✓	8	○(52)	○	○	在案下第1行/在黃筐中 2질	국중
12	語類節要	8	○(64)	○	○	제3행/제7행/在黃筐中 3질	국중
13	東史綱目	20	○(48)	○	○	제4행/제6행/在黃筐中 3질	국중
14	東史外傳✓	1	-			-	
15	明史末卷	1	-			제4행-明史綱目	
16	洪範衍義✓	2	○(37)				
17	內範	1	○(30)	○	○	在箱中/在黃筐中 2질	
18	韻解上卷✓		-				
19	木州志	1	大麓志(68)		木川志		규장각-전집3
20	僕說類編	11	○(51)		僕說類編纂		
21	家禮集註✓	7	家禮集解(70)		家禮集解	제5행-家禮考証	
22	家禮翼✓	5	-				
23	列朝通紀✓	30	○(56~)			(在案上)제2행/在黃筐中 2질	규장각-장서각-총서
24	百選詩	7	○(52)		○	(在案下)제4행 (當在下)	
25	八家百選	2	-	○	○		
26	文章發揮✓	10	-		○		
27	詩經名物考✓	1	○(74)		名物考辨		
28	希賢錄	(1)	○(46)	○	○	在箱中/在黃筐中 2질	장서각-전집2
29	(僕說類編)續編	1	-				
30	(僕說類編)別集	3	-				
31	四書疑問✓	-	-			四書琢玉?	
32	三經疑問✓	-	-				
33	禮經辨論✓	-	-				
34		(1)	天學考(74)			在箱中	
35		(1)	天學問答(74)				
36		(1)	德社學約(75)		學約	在案上第1行	
37		(1)	東銘圖(75)				
38		(2)	-	兵鑑	兵鑑	在箱中/在黃筐中 2질	

39		(1)	-	家禮附贊		(在案上) 제4행	
40		(1)	-	千首唐絕		(在案下) 제3행 (當在上)	국중
41		(1)	-		箕子通記	箕子志=(在案上) 제4행	
42		(1)	-		大學經說	東儒經說=(在案下) 제3행(當在上)	
43		(1)	-		東國逸史外紀	逸史搜奇= 在案上第1行	
44			-		擬問		국중-전집2
45			-		正變統圖		
46			-		東國文獻通考		
47			-		東國事文類聚		전집4-만물 유취**
48			-		南史		
49			雜卦說(30) /後說(31)		卦說		
50			井田說(29)		井田說		
51			-		擬行家禮		
52			-		四時養性書		
53			-		嶺南先賢傳		
54			-		三賢傳 (諸葛留邵)		
55			-		西陽記		
56			道統圖(26)		道統圖		
57			-		論孟擬問		
58			-		三聖傳		
59			-		東國烈女傳		
60			治統圖(26)		治統圖		
61			-		小學講義		
62			-		東國地理志		
63			-		東史補闕		
64			-		山居錄		
65			-		東國近思傳		
66			-		東國高士傳		

〈표 2〉에서 제시된 순암의 저술을 그의 「제초서룡」과 「제저서룡」의 시에서 나 타난 저작의 과정과 48세 때의 유언을 종합하여 판단해 보면 순암의 저작 이면에서 수많은 초서롭게 저작의 과정이 있었음을 짐작케 한다. 실제로 국립중앙도서관에 소장된 순암의 저작물 가운데는 본격적인 저서보다는 오히려 초서롭게 열의 저작이 많다.

특히 안정복 가문의 책력일기가 상당부분을 차지하여 『안정복일기』(국중 古朝 93-44)로 명명된 册函에는 다음과 같이 다양한 크기로 제책되어 있는데 그 내용도 한 책에 다양한 내용을 수록하고 있다. 이를테면 『東儒師友錄』이라는 표지가 붙은 책자에는 「東儒師友錄凡例」를 비롯하여 「海東道學淵源錄」 등이 있으면서 또 한편에는 중국의 역대 문인들의 시가 필사되어 있는가 하면 『東平尉公私見聞錄』이라는 표지가 적힌 책자에는 그 배면에 「廣州安氏世界」가 있으면서 내용으로는 「李先生禮說類編」이나 「丙子日記雜抄」, 「東人別號」 등이 이어지고 있는 식이다.

책자의 제목으로 특징적인 것은 서명에 유독 抄자나 鈔자를 삽입하여 실제 이것이 초록한 저작임을 밝히는 것이 적지 않다는 것이다. 이를테면 『文抄略』·『陽明文抄』·『古禮抄』·『南華抄』·『前漢書抄』·『晉書文抄』·『季漢書鈔』 등이다. 초록이라고 명시하지 않았지만 내용상 초록이 분명한 것으로는 『列傳七十家』·『古文淵鑑』·『醫學入門』·『祝穆編』·『群書弁文』·『選賦』 등이 있다. 이렇게 초록한 자료들은 중국 또는 조선시대 문인들의 문장과 漢詩, 經學 저작, 역사서, 醫書, 軍書, 점성술 등 다양하다.<sup>13)</sup> 특히 역사에 관한 많은 초록은 뒷날 『東史綱目』, 『史鑑』, 『列朝通記』와 같은 역사서를 저술하는 데에 큰 도움을 준 자료가 되었을 것으로 여겨지는데<sup>14)</sup> 이에 대해서는 그 초서롭게 도서를 일별하고 그 연관관계를 추적하는 후고가 요망된다고 하겠다. 여기에서는 우선 그 개별 초록서들을 經史子集의 분류로 구분하고 개별 도서의 성격을 간략하게 일별하되 그들 초서 자료를 실제 저작에 활용했을 것이라는 추정에 기초해 검토한다.

13) 국립중앙도서관에 소장된 초서롭게 저작에 대한 연구는 이해은·김효경, 앞의 논문, 74-85면 참조.

14) 강세구, 1994 『동사강목연구』, 민족문화사, 39면; 이해은·김효경, 앞의 논문, 특히 80-81면 참조.

### 3. 초서통계 저작의 양상

1) 『안정복일기』<sup>15)</sup> 속의 초서통계 저작



〈그림 3〉 『안정복일기』의 제책 모습

『안정복일기』 내에는 다양한 소량의 필사본 저서 외에 다양한 초록류 저작들이 산재되어 있다. 이러한 다양한 분야의 책들을 일별의 편리를 고려하여 經史子集의 주제로 분류해서 그 간략하게 내용을 소개하면 다음과 같다.<sup>16)</sup>

15) 『안정복일기』는 일제 총독부도서관 시절에 처음 자료를 구입할 때 잘못 제목을 붙여놓은 것을 그대로 인습한 것으로 단일한 책종이 아니라 다양한 초록류 저작이 포함된 잡록류 총서이다. 다만 그 잡록들 가운데 안정복가의 책력일기, 곧 안정복과 그의 아들인 안경증, 손자인 안철중과 안필중, 증손자인 안효근의 일기가 상당부분 포함되어 있어 붙여진 이름이다. 전체 64책이었으나 현재 58책이 남아있다. 자세한 내용은 김현영, 2012 「안정복 일기」『선본해제 14: 순암 안정복』, 국립중앙도서관 참조.

16) 해당 내용의 간략한 해제의 좀 더 자세한 내용은 위의 책 참조.

## 〈표 3〉 經部

서명	주요내용	비고
四書疑義	四書의 중요한 내용을 과거수험용으로 정리해 놓은 것	四書
尋摘	태종대의 강학활동, 수창공 화재사건, 경전의 의미에 대한 각종 문목 수록	雜錄
臥草	四書의 핵심 논점에 대해 그 의미를 정리한 책	四書
性理大全抄	四書 발췌한 책	四書
庸學直解	전반부는 明 張居正이 편집한 『四書直解』 중 『中庸』板本이고, 중간 이후로는 『中庸集略』필사 초록본	中庸
大學心解	성호의 조카이자 동문 고제인 貞山 李秉休의 대학 해석을 필사해 놓은 것	大學
大象類抄	書義를 초록한 것으로 尚書에 대한 조목별 해석이 주된 내용	尚書
占書易數	64괘의 占卜과 易數에 관한 초록	周易

『안정복일기』 소재 초서록 계열의 경부 관련 내용은 주로 四書에 집중되어 순수하게 학문적 의도를 지닌 것도 있고, 과거 수험용으로 내용을 정리해 놓은 것도 아울러 있다. 『서경』과 『주역』에 대한 내용도 일부 보이지만 그 내용이 아직 본격적으로 많은 것은 아니다.

## 〈표 4〉 史部

서명	주요 내용	비고
史論 下	晉紀 南宋紀 등의 中國史論을 초록한 것	史論抄
晉書列傳	표제는 史雜抄, 晉書隋書 全으로 되어 있고, 실제 내용은 晉書列傳이 초록되어 있다. 啓禡野來文句抄 등 명말 鄭濬의 글 등이 초록되어 있다.	史論抄
歷代名儒錄	綱鑑抄全 歷代名儒錄으로 사마천 이하 역대 명유들의 간략한 전기를 필사한 것	列傳抄
晦庵辭官說	「회암사관설」이나 「孫爲祖後說」 등 주로 宋史를 초록한 것	史書抄
東平尉公私見聞後略	표면은 廣州安氏世系의 초고이고 이면은 張騫 후예의 일화, 東平尉見聞抄錄, 李先生禮說類編, 丙子日記雜抄, 東人別號錄 외에 각종 행장이 첨부되어 있다.	史書雜錄
內下東史綱目校上草	표제에 '癸卯九月在獻齋校正'이라는 내용이 있어 1783년 현릉령을 하면서 정조의 명으로 『동사강목』을 교정한 초본임을 알 수 있다.	校正抄
東閣雜記	『동각잡기』의 필사본 초록	史書抄
故事撮要	어숙권의 『고사활요』의 목판본에 순암이 추가 보록을 한 것	補正抄
桂坊日記	임진년(1772), 갑오년(1774), 을미년(1775)의 桂坊日記와 계사년 5월, 을미년 11월, 계묘년 8월의 조보, 기유년(1789) 첨지중추부사의 仕宦日記	日記
秋收記	1729년~1732년간의 책력일기 합본으로 이면지에 다양한 메모가 있다.	日記

『안정복일기』 史部 자료의 특징은 魏晉시기와 宋代에 대한 역사서 초록이 눈에 띈다는 것과 국내 사적들의 내용을 일별할 수 있는 다양한 잡록류들에 대한 필사초록이 많이 보인다는 것이다. 자기 삶의 국면에서 본격적인 저술로 가기 전에 일단 메모 형식으로 정리해 놓은 『계방일기』나 『추수기』는 일기형식의 기록으로서 순암의 저서 가운데 가장 빈번하게 나타나는 기록물적 성격의 하나이다.<sup>17)</sup>

〈표 5〉 子部

서명	주요 내용	비고
三韓秘記道詵傳	나말여초의 고승인 道詵傳을 비롯하여 「南師古秘記」, 「十勝保吉之地」 등을 曆書의 이면에 초록한 것	음양
差穀集抄	실제 내용은 撇日과 관련한 기록이 초록되어 있음	음양
鏡命寶鑑	陰陽吉凶에 대한 접복서	음양
性理群書	「李都事敬叔別紙」 등 성리학과 관련한 여러 서적에서 초록한 것	성리
治縣雜錄	수록된 「治縣雜錄」은 「治縣譜」나 「百里鏡」 등의 저술로 나아가는 단계의 초록이고, 「豫軒隨筆」은 「순암집」에 수록된 내용의 전단계이며, 「乙巳彌孫單冠儀」는 을사년에 손자 필손에게 관례의식을 행한 기록	향정
德社學約	표제는 '덕사학약'으로 되어 있고 후반부에는 남당 한원진, 우암 송시열의 글이 등사되어 있다. 『순암집』에 수록된 「德谷書齋月朔講會約」과 동일한 내용인데 순암 말년에 덕곡서재에서 행한 學規이다. 三戒, 四勿 등의 규약이 있다.	향정
慶安面洞內題名案	광주 경안면의 土族들의 명단을 적은 洞案	향정
策問	각종 책문 초록	경세
君道門	分門類聚한 雜錄	경세
旱雲災異	'擬本朝請遣築官赴京敎習以遵禮樂之制' 등 잡다한 문장을 초록함	경세
同表	戊寅年 정월 초십일의 비망기 등 초록	경세
潮汐	경전에서 법제에 이르는 41항목을 발췌 편찬한 것인데 12항목 現傳	경세
養老囊說	軍政의 개선에 대한 상소문과 문집 초록	경세
爛簡	상소문이나 조보를 초록한 것. 여기에는 김수홍 관련 조보기사 있음	경세
場操程式	영조대의 군사 훈련 절차를 초록한 것	경세

17) 이와 관련하여 가장 대비적으로 볼 수 있는 것이 바로 대산 이상정의 『책력일기』와 동시대 박학자로 이름 높았던 이재 황윤석의 『頤齋亂藁』이다. 특히 『이재난고』는 거의 전편이 日記의 형식을 띠고 있지만 그 일기 사이사이에 다양한 공문기록과 독서경험, 때로는 문집이나 잡록을 필사해 놓은 것을 확인할 수 있다. 순암 역시 하나의 거대한 책자로 엮지는 않았지만 기본적으로는 이러한 다양한 필사를 통한 기록물들의 집적 속에서 자신의 저작을 해 나간 것은 분명하다.

『안정복일기』 자부류의 가장 큰 특징은 자신의 삶을 둘러싼 거의 모든 일에 관심을 가지고 부지런히 초록했다는 것인데 크게 분류해 보면 經世, 鄉政과 관련한 것이 상당부분을 차지하고, 음양술수 관련한 내용도 간간이 발견된다. 경세에서는 軍政과 관련한 내용을 주의깊게 정리하고 있는 점이 주목할 만하다.<sup>18)</sup> 향정은 주로 자신이 거주하고 있던 광주 덕곡, 곧 덕곡의 士族이나 덕곡에서 진행되었던 향촌 교화와 관련한 초록으로 본격적 저작의 전 단계 저술로 이해된다.

#### 〈표 6〉 集部

서명	주요 내용	비고
震儼	우리나라 사류변려문을 초록한 것으로 단종대왕 推上謚冊 등이 있다.	文抄
兩棄齋遺稿	순암의 조부인 안서우의 문집 하권이다. 속집도 별책으로 있다.	文集
堯山堂記抄	중국의 고전과 역사를 초록한 책	古典

『안정복일기』 내의 集部에 해당하는 것은 매우 소량한데 그 마저도 하나는 완전한 필사본으로 자신의 조부와 관계되는 문집이다. 실제로 순암은 문학에 대해 그렇게 많은 흥미를 보이거나 관심을 두지 않았는데, 대개 남아있는 집부 관련한 것도 자신에게 소용되는 것이라기보다는 아우나 자제의 과거공부와 관련하여 정리한 것이 대부분이다.

#### 2) 국립중앙도서관 소장 초서록계 저작

국립중앙도서관 내의 초서록계 저작은 그 수가 적지 않고, 일부는 순암가에서 나온 것은 분명하지만 순암이 꼭 정리했다고 보기 어려운 저작도 없지 않다. 그러므로 순암의 친필이 분명한 것을 위주로 경사자집으로 분류하여 간결하게 그 내용을 정리해 본다.

18) 순암의 『동사강목』에는 군사제도와 관련한 많은 예화들이 등장한다. 초록된 내용들에서 활용된 것임을 짐작할 수 있는데 이와 관련해서는 후고에서 그 실체를 검토한다.

〈丑 7〉 經部

서명	주요 내용	비고
易經心解 易例諸說	표지서명은 隨手記單이다. 전반부는 漢書의 각종 志와 역대 篆銘을 초록한 것이고 후반부는 '역경심해역례解설'이 있다.	漢書, 篆銘, 周易
易學圖	易學二十四圖와 後天窺管을 필사 합본한 것	易經圖說
易象補遺	曹好益의 『易象說』을 중국의 역학자들의 문헌을 근거로 보유한 것	易經註釋
禮記疑	禮記의 의문점을 정리한 것	禮記受驗書
禮記集說補	안정복의 저작인 禮記集說의 보록편	禮記補錄
儀禮喪服篇 註疏疑義	儀禮 喪服篇의 註疏 가운데 의심나는 부분을 五服에 맞추어 정리하고 그 복제의 의미를 밝힌 것	儀禮
古禮抄	禮記를 위주로 기타 예서의 주석을 붙여 재구성한 의례서	禮記
家禮附贅	安巩의 가례부록을 순암이 교정한 것	校正抄
疑私	四書와 通書에 나오는 내용을 문답형식으로 정리한 책으로 대학 중용이 특히 많이 거론되었다.	四書受驗書



〈그림 4〉 『古禮抄』



〈그림 5〉 『易學圖』

『주역』과 『예기』에 대한 순암의 관심을 확인할 수 있다. 『주역』은 주로 자신의 이해를 둑기 위하여 검토한 흔적이 역력한데 ‘易經心解’라는 서명은 이병휴의 저작에 ‘大學心解’라는 서명이 있는 것과 더불어 좀 더 고찰이 용망된다.

『예기』는 『禮記集解』 등 손암의 禮記 과령저작과 연관지어 판단할 수 있겠다.

관련하여 주의깊게 볼 만하다. 특히 『禮記集說補』는 그 서명에서도 깊은 연관성을 찾을 수 있다.

### 〈표 8〉 史部

서명	주요 내용	비고
中國古代史抄	『中國列國指掌圖』와 그 도설 및 여러 고대사료를 초집한 것	中國史料抄
前漢書抄	표제와 달리 前漢書抄를 비롯하여 당송원명의 명문도 초록했다.	中國史抄
季漢書抄	季漢書이 外傳과 蜀 관련史料抄錄	中國史料抄
晉書文抄	晉書列傳의 문장 초본	中國列傳抄
名臣錄章草	禮書와 史書 등에서抄錄集成. 명신록장초와 二蘇文抄, 綱目論抄, 新唐書抄, 曆象集抄, 經世抄, 左傳姓名錄 등이 列記되어 있다.	禮史 雜抄
日知錄抄	顧炎武의 日知錄 초록	中國史料抄
歷代制度	通鑑綱目, 資治通鑑, 兵鑑 초록	中國史抄
列傳七十家竝附	중국의 역대 인물 70인을 발췌하여 열전을 편찬하려고 시도한 책	中國史列傳編成
皇明綱目	張廷玉 등이 황명을 받고 편찬한 『자치통감강목삼편』의 낙질본에 순암이 다양한 자료를 바탕으로 기록을 덧붙인 것이다.	중국사초
史論 2책	상고시대부터 元代까지 중국역대 사실을 간략하게 기술하고 이에 대한 역대의 사론을 모은 책	중국사론
史鑑 7책	편년강목체로 위은 중국상고사. 상고시대부터 夏殷周시대를 春秋, 左傳, 國語, 史記 등을 기초로 편찬한 것. 저서에 가까움	중국사편성
讀史詳節 16책	중국사 개설서. 상고시대부터 오대까지의 역사 상세히 초록	중국사개설
東史綱目 5책	東史綱目 부록인 考異와 地理에 대한 자필초본	高麗史
東史補闕	東史綱目에서 궐락된 부분에 대한 보궐로 三國列傳, 對馬島傳, 日本傳外, 天文五行志 등 4편으로 구성된 未完書	高麗史
東史綱目 3책	東史綱目的 자필초본. 원서인 名賢彙語의 내지에 초본으로 작성	高麗史
魯陵顛末	단종의 遷位顛末과 당시 정승들의 주요행적을 열거하고 정조의 사제문을 수록한 책	朝鮮史

史部에서 특히 주목되는 것은 순암의 중국 고대사에 대한 관심이라고 할 수 있다. 기존 문헌을 활용하여 史料와 史論을 정리하고, 편년강목체라는 역사서술 기법을 활용하여 중국사에 대한 개설을 시도한 것은 그 자체로 중국사 이해의 심화로 볼 수 있지만 동시에 東國史 집필을 위한 준비 작업으로 그러한 훈련을

스스로 수행한 것이 아닌가 하는 짐작을 낼 수 있겠다. 중국사서의 문장을 초록하고, 초록한 다양한 사서의 문장을 활용하여 원대까지의 개설서를 편성한 것은 바로 『東史綱目』과 『列朝通記』 편찬의 좋은 예비과정으로 이해해도 큰 무리가 없을 것이다. 列傳과 典章制度와 관련한 내용을 꾸준히 초록하고 활용하려는 시도 역시 그러한 맥락에서 의미를 찾을 수 있다.



〈그림 6〉『古代史抄』



〈그림 7〉『晉書文抄』

자국사와 관련해서는 『東史綱目』 저술의 주변과 관련한 흥미로운 자료와 평가보다는 자료중심의 斷代史를 기획할 수밖에 없는 『列朝通記』 편성의 여건상 『魯陵顛末』 등과 같은 초록 저서의 시도는 매우 주목할 필요가 있겠다.

### 〈표 9〉 子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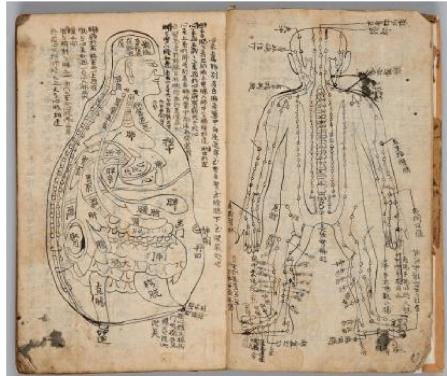
서명	주요 내용	비고
南華抄	장자 南華經의 본문 일부를 초록한 것. 학습 흔적이 있다.	제자서
北溪先生 性理字義	진순의 북계자의 초본. 뒤에 朱子大全抄와 井田說이 부기됨	성리서
先賢格言	주자 誤계의 견언 모음집. 순암이 19세 때 아산에서 초록한 것	성리서
語類節要	주자어류의 절요본으로 어록체를 고문형태로 바꾸어 강독에 편의성을 더한 것이다. 朱子書節要와 같이 저작으로 보아도 무방하다.	주자서
過危橋	張載의 正蒙과 주돈이의 通書에 대한 註를 선별한 것	성리서

堪輿散錄	風水說의 일종인 相地術에 관한 초록서	음양풍수
玄藪	중국 점술법인 紫薇斗數의 초록본	점술서
二垂課	12將神을 돌려 길흉화복을 점치는 점술서의 초록본	점술서
臨官政要續篇	臨官政要의 속편으로 時措부터 시작된다.	목민행정
百里鏡	臨官政要의 초기본	목민행정
譯語類解抄	숙종조 사역원의 慎以行의 중국어사전의 초록서	어학
醫學入門	李梴이 편찬한 醫學入門 가운데 진찰조만 초록한 것. 그림 삽입	의학
針灸	元代의 『徐氏鍼灸大全』, 明代의 『鍼灸大成』과 조선의 『醫學入門』을 초록한 것	의학
明知錄	曆法, 算學, 歷史 관련 雜錄	잡학

子部의 초록에서 눈길을 끄는 것은 陰陽 術數와 관련한 초록서가 의외로 많다는 것인데 이것은 순암의 짚은 시절의 관심사 또는 실제 이와 관련하여 어느 정도 이름이 있었던 것을 반영하는 것이다. 실제로 성호는 陰陽·堪輿와 풍수에 관심을 보이는 순암을 나무라기도 했다.



〈그림 8〉『堪輿散錄』



〈그림 9〉『醫學入門』

性理書 가운데 중요한 것은 『語類節要』이다. 『어류절요』는 순암의 의견이 표면적으로 반영되지는 않았지만 퇴계의 『주자서절요』에 대응하여 의욕적으로 진행한 것으로 『주자어류』에 기록된 어록체를 산절하고 古文으로 어류를 읽을 수 있도록 抄節한 것인데 친필본이다. 그의 저서 목록에도 당당하게 반영될 만큼

중요한 저작이다.<sup>19)</sup>

한편, 순암의 목민행정과 관련하여 자주 거론되는 것이 『臨官政要』이다. 그런데 위에서 거론된 다양한 초본의 존재에서도 알 수 있듯 이 책은 한 번에 편찬된 것이 아니고 다양한 과정을 거치면서 점차 追補된 결과 완성된 것이다. 『百里鏡』과 『臨官政要續編』은 그러한 저간의 과정을 추적하는 데 중요한 길잡이가 되는 문헌이다.

외국어학이나 의학 서적에 대한 초록은 사대부가의 교양과 관심으로서의 범위를 알려주는 것으로 의미가 있다. 전체적으로 순암은 성리학에 관심이 없었던 것이 아니지만 가장 일반적인 관심의 수준에서 그쳤던 것은 초록서의 결과물에서도 파악된다.

〈표 10〉 集部

서명	주요 내용	비고
剩工	箴, 銘, 詔의 문장을 초록한 것	科試用
科表	112편의 科表 모음집	科試用
東表策	對策과 表를 중심으로 중국의 유명한 30여 편의 표문과 조선의 24편의 책문 수록	科試用
杠筆	對策文을 주제별로 모은 것	科試用
文抄略	구양수와 소식의 문장과 문선, 고문진보의 문장을 초록한 것 순암의 친필초록서는 순암의 평론이 적지 않다.	科試用
古文淵鑑	고문연감을 초록한 것	類書
祝穆編	事文類聚의 古今文集 가운데 일부를 초록한 것	類書
群書弁文	韓中 名士들의 經史子集의 序文을 초록한 것	文抄
陽明文抄	王陽明文集 초록서, 字書와 中國名士 人的事項 부기	文抄
勝覽詩彙	東國輿地勝覽의 수록된 시들을 초록한 것	文抄
安鼎福手抄本續集別集	事文類聚의 古今文集 가운데 속집과 별집을 초록한 것	文抄
洞庭瀾	對策文을 초록한 것인데 金鍾秀의 상소문도 포함되어 있다.	文抄
東詩雜彙	조선시선집, 특히 逸詩의 補錄적 성격도 있다.	詩選

19) 현재 국립중앙도서관에 2책, 고려대학교 고도서실에 2책이 전해지고 1책은 행방이 묘연하다. 이에 대해서는 정선모, 2013 「안정복의 『주자어류절요』고」 『한국실학연구』 25 참조.

千首唐絕	당시 오언절구 천수를 선별하려던 시선집. 실제는 375편만 선별됨	詩選
百選詩 6책	唐代를 중심으로 역대 시를 문체별로 선별한 저작 초본	詩選
選賦	文選과 漢書列傳에 수록된 賦 총 31편을 선별하여 엮은 것	賦選
覆瓿稿 16책	순암집의 초고본	文集草本
橡翁隨筆 2책	상권은 주로 術數와 墓祭 관련한 것이다. 하권은 문집의 橡軒隨筆에 편입되었다.	文集草本
雜書抄	중국 고전의 원문을 인용하고 간결한 頭註를 제시했다. 史記의 項羽本紀, 周禮의 雇工記, 禮記의 樂記와 中庸 등이 수록되어 있다.	古典選集



〈그림 10〉『千首唐絕』



〈그림 11〉『覆瓿稿』

集部의 특징은 상대적으로 매우 화연하다. 기본적으로 과거준비를 위한 대비용으로서의抄集이 상대적으로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다. 다양한 科体에 대비한 초록서들은 당연히 그러한 협의에서 자유로울 수 없고, 詩選이나 文抄 역시 그러한 시각에서 보면 더욱 설득력을 가지게 된다. 類書와 古典選의 활용 역시 기본적으로 과거에 대한 준비와 깊은 연관성이 있다. 『勝覽詩彙』와 같은 경우에는 순암과 그의 아들 경증이 함께 選詩하고 편성한 것이다. 이것은 부자가 함께 하는 문예학습으로서 의미가 없지 않지만 그 근저에는 과거에 대한 준비와 완전히 무관하지는 않을 것으로 판단된다.

文集의 草稿로서의抄錄書의 의미도 짚어볼 필요가 있다. 『순암집』은 그의 제자 황덕길에 의해 재편집되어 1900년대 5대손 안종엽이 목활자로 간행했다. 그

런데 목활자로 간행하면서 여러 가지 사정에 의해 문집의 초고인 『부부고』의 많은 자료들이 산삭되었다. 일례로 『부부고』에 수록된 319편의 서간들 가운데 『순암집』에 수록된 것은 175편에 불과하여 144편은 『부부고』에만 남게 되었다. 그런데 이 산삭된 내용 가운데 상당부분은 양명학과 천주교와 관련된 사항이나 북학파와 영남학자들과의 교류를 볼 수 있는 것이 적지 않다.<sup>20)</sup> 그런 점에서 본다면 문집에 편입되지 않은 『橡翁隨筆』 上卷의 존재 역시 초록서의 유의미성을 이해하는 데 시사점을 준다.

#### 4. 남는 문제

抄書를 통해 著書를 이루한 순암 안정복의 저술과정을 고찰하기 위하여 우선 그 초록서들을 일별한 이 글은, 순암의 초서통계 저작을 經史子集으로 분류하여 그것이 그의 학술경향이나 저작으로 연결되는 연관성을 일부 가늠해 보았다. 결론적으로 순암 안정복의 저작을 온전하게 이해하기 위해서는 그 저작을 완성하는 과정에서 산출한 다양한 초서통계 저작의 내용을 함께 살펴보아야 한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

이를테면 『동사강목』의 역사서로서의 의미를 정확하게 이해하려면 그 결과물로서 우리에게 놓인 『동사강목』 그 자체만을 연구할 것이 아니라 그 저작을 집필하기 위해 거쳤을 것으로 생각되는 집필의 수련과정 역시 음미해볼 필요가 있다는 것이다. 검토한 바와 같이 순암 안정복의 경우, 관련한 자료가 상당 부분 남아있기 때문에 그 과정을 충실하게 되짚어 보는 것이 어느 정도는 가능할 것으로 판단된다.

또한 충실하게 초서통계 저작들을 검토하는 과정에서 순암의 저작을 추가할 수도 있을 것이며, 기존의 평가를 새롭게 전환하는 계기를 마련할 수도 있을 것

---

20) 서종태, 2011 「순암문집의 정본화를 위한 일방안」 『성호학보』 10. 이와 관련하여 2012년 국사편찬위원회에서 『한국사료총서』 56권으로 『順菴覆瓿稿』 上下편이 활자본으로 간행되어 『순암집』의 정본편성을 위한 시도가 한결 탄력을 받게 되었다.

이다. 그의 시가 그러하며, 그의 『임관정요』가 또한 그러하다. 『동사강목』과 『열조통기』를 저작하는 과정에서 순암이 참고했을 것으로 짐작되는 저작들에 대한 검토와 문집의 초본으로 남겨진 자료 등에 대한 접근은 여전히 순암의 저작에 대해 의문시 되는 많은 점들을 해소하는 데 도움을 줄 수 있을 것이다.

검토한 바와 같이 순암은 한 번에 바로 저작을 완성하지 않고 여러 번의 개고 과정을 거쳐 온전한 저작을 완성하면서 그와 관련한 자료를 적지 않게 남겨두었다. 그에 대한 검토는 이러한 과정을 밟았을 것으로 추측되는 전통시대 문인집 단의 저술 습관과 그 과정을 이해하는 데 기여할 수 있을 것이며,<sup>21)</sup> 순암이 초록한 다양한 참고서목들에 대한 검토는 당대 근기지역의 지식인이 참고할 수 있는 지적 정보의 일정한 범주를 확인시켜 줄 수 있을 것이다. 여기서는 우선 그 가능성을 제기하고 자세한 참고자료들에 대한 검토는 후고를 기약한다.<sup>22)</sup>

주제어 : 순암 안정복, 초서롱계 저작, 제초서롱, 제저서롱, 경사자집

투고일(2017. 6. 1), 심사시작일(2017. 6. 9), 심사완료일(2017. 6. 24)

21) 다산 정약용이 자신의 『周易四箋』을 저술하면서 4번의 개고과정을 거친 것은 새삼스러운 것이 아니다.

22) 이와 관련하여 본고에서는 검토하지 못한 『잡동산이』에 대한 고찰은 매우 중요한 과제가 될 것이다. 전체가 초서롱 저작이라고 할 수 있는 순암 친필본 『잡동산이』에 대한 검토는 이 글에서 제기한 문제의식에 대한 하나의 응답이 될 수 있을 것인데 조만간 그 성과를 공표할 수 있을 것으로 생각된다.

## 〈Abstract〉

# Notes of the Southerners Based in Seoul and Gyeonggi Region(近畿南人) in the Late Joseon Dynasty

– Focusing on Sunam An Jeong-bok(順菴 安鼎福)'s Basket Containing  
Transcribed Books(抄書籠) –

Ham Young-Dae \*

This thesis examines notes by An Jeong-bok(安鼎福, 1712~1791), also referred to by his pen name Sunam(順菴), focusing on the literature he established. Through his works of Chinese poetry, “Basket Compiling Transcribed Books(題抄書籠)” and “Basket Collecting Authored Books(題著書籠),” An Jeong-bok once confessed that he wrote his books by summarizing the books he had found and by reading summarized books, he created his literary works. An Jeong-bok is noteworthy in that a vast collection of his transcribed books remains, which are closely related his authored books.

It is believed that reviewing his authorship of Basket Containing Transcribed Books(抄書籠) will be quite meaningful, for we can investigate an aspect of the history of scholarship in the late Joseon Dynasty concerning the formation of knowledge and authorship among the Southerners based in Seoul and Gyeonggi region(近畿南人), in two respects that an intellectual personally transcribed lengthy books accumulating knowledge and information, from which he authored books, and that the entire process can be fully restored.

This study classified Sunam's authored books under Basket Containing Transcribed Books(抄書籠) using the classic four categories(經史子集) in order to estimate their correlations with academic tendencies or authored books. Conclusively, it was confirmed that in order to fully understand the books authored by Sunam, we must examine the content of various authored books under Basket Containing Transcribed Books(抄書籠) by examining the production process of his authorship.

---

\* Senior researcher, Daedong Institute for Korean Studies, SungkyunKwan University.

For example, in order to accurately understand the meaning of “Eastern History(東史綱目)” as a history book, we need not research the “Eastern History” per se but also appreciate the writer’s training process which we believe he must have passed through.

In case of An Jeong-bok, much of his materials is available today, so reviewing the process may be possible to some degree. Sunam did not author his books straight away but completed them by rewriting manuscripts a number of times and left behind a quite large quantity of related materials. The review on his works can contribute to understanding the habit and the process of writing among literary groups in the traditional society.

In addition, the review on various reference books transcribed by Sunam might be able to confirm the scope of intellectual information available to Seoul and Gyeonggi-based intellectuals during the period.

**Key Words :** Sunam An Jeong-bok, Authored Books under Choseorong(抄書籠系),  
Basket Compiling Transcribed Books(題抄書籠), Basket Collecting  
Authored Books(題著書籠), Classic Four Classifications(經史子集)